



국내 증시 점검: 긴축에 민감해진 시장

24일 국내 증시 급락

- 24일 KOSPI는 전일 대비 2.45% 하락. 은행 제외 업종(WI26 기준) 모두 하락, 기관(연기금 중심) 순매도
- 일본(Nikkei225 -1.61%), 중국(상해종합 -1.99%), 홍콩(항셱 -2.99%), 대만(가권 -1.40%) 등 아시아 증시 동반 하락

홍콩 악재와 미국 금리 불안 지속

- 1) 홍콩 주식거래 인지세 인상 소식: 홍콩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주식거래 인지세를 0.1%에서 0.13%로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 홍콩 소비 부양을 위한 부양책을 함께 발표했지만 증세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이 상쇄되진 않음
- 2) 미국 금리 불안 지속: 전일 파월 연준 의장의 상원 의회 발언을 통해서 연준의 조기 정책 변경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함. 아시아 장 중 미국 국채 10년 금리도 하락세를 보였음. 그럼에도 추가 부양책 추진 등으로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과 금리 상승에 대한 시장의 경계는 지속된 것으로 보임

경기 회복 초기, 긴축에 민감해진 시장

- 글로벌 경기가 코로나19에서 탈피해 본격적인 회복 기대가 높아지면서, 그간 유동성과 부양책에 의해 오른 주식 시장에는 긴축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강해진 상황. 전일 파월 연준 의장이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경계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 상대적으로 경기 회복이 선행된 중국 지역에서 정책 조정이 먼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 함. 중국 인민은행이 춘절 연휴 이후에도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유동성을 대규모 순회수한 것과 홍콩의 증세 이슈 등이 여기에 해당함
- 기저효과와 부양책, 코로나19 백신 등에 의해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는 초기 국면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불안이 나타날 수 있음. 경기 부진과 그에 대응한 부양책에 의한 주가 상승 효과가 컸는데, 반대로 경기 회복은 부양책 축소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 하지만 주요국 통화 및 재정정책의 방향성이 급격하게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요. 미 연준뿐 아니라 유럽중앙은행과 중국 인민은행 모두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음. 긴축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고, 높아진 물가나 금리 수준이 경기와 기업이익을 훼손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주식시장 하방 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됨